

KOTRA자료 24-074

2024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무역사기” 대응 요령

우리 기업의 무역사기 대응을 지원합니다.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KOTRA 무역사기 담당 전문위원

무역사기 (의심)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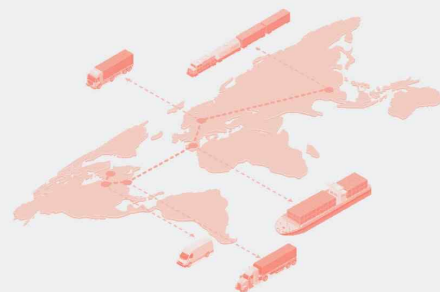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무역사기사례 페이지

국가별 최근 무역사기 발생(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목 차

I. 들어가며	1
II. 무역사기 이해하기	2
1) 발생 현황과 분류	2
2) 발생 배경과 동기	4
3) 동향과 사례 분석	5
III. 무역사기 예방전략	14
1) 위험 평가 및 관리 체계 운영	14
2) 무역사기 유형별 주의해야 할 사항	16
IV. 무역사기 발생 시 핵심 행동요령	28

요 약

-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18건으로 집계

〈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현황 〉

년도	2020	2021	2022	2023
접수 건수	160	130	125	118

- 2023년에 무역관을 통해 접수된 무역사기 건들은 유형별 분류에 따라 서류위조 29건, 선적불량 25건, 결제사기 20건, 이메일사기 17건, 금품사기 15건, 불법채류 2건, 기타 10건 순으로 접수
- 유사한 무역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사기 유형과 수법에 대한 이해 필요
 -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며 제3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주의
 - 제품 확인 전 대량주문을 하거나 우호적인 결제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서두를 경우 무역사기의 확률이 높음
-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회수 등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
 - 거래 전 KOTRA(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국외기업 신용 조사) 등을 통한 해외 기업 및 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
 - 신흥국과의 거래, 대형 거래 또는 첫 거래인 경우 무역보험,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 확보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은 무역의 기회를 넓혔지만, 그와 동시에 사기의 위험도 증가시켰습니다. 무역사기는 기업의 재정뿐만 아니라,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경찰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위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무역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전략과 신속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무역사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내외 지원채널을 안내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역사기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발생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발생 유형별 예방 전략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사기 발생 시의 핵심 행동요령을 다루며, 필요한 지원채널을 안내합니다. 각 부분은 실제 사례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여, 무역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이 우리 기업의 사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II

무역사기 이해하기

1. 무역사기의 발생 현황과 분류

2023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건수는 118건이나, 실제 발생하는 무역사기 건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현황 >

년 도	2020	2021	2022	2023
접수 건수	160	130	125	118

무역사기에는 국제 상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위를 포함됩니다. 이는 무역 계약의 한 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사기는 결제사기, 선적불량, 금품사기, 이메일사기, 서류위조, 불법체류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역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의도적인 속임수입니다. 사기꾼은 종종 세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 그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와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사기: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
- 2) 선적불량: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특히 선금금을 요구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며, 수출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을 선적하는 유형

- 3) 금품사기: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 비용, 공증 비용, 인증 취득 비용,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수수료 선 송금을 요구하여 금품을 편취
- 4) 이메일사기: 무역업체 이메일을 해킹하여 장기간 피해업체의 수·발신 메일을 모니터링 한 뒤, 규모가 큰 거래 발생 시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허위 이메일을 발송하여 송금 유도
- 5) 서류위조: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수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기업등록증 등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거래의 진실성을 속이는 경우. 이는 관세 회피, 상품 가치 조작, 상품 편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도됨
- 6) 불법체류: 바이어로 위장하여 국내기업에 유리한 거래를 제안한 뒤, 제품 확인을 위한 한국 공장 방문 등의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 한국 입국 후 잠적하는 유형
- 7) 기타: 해외투자 사기, 상표 도용 사기,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를 통보하고 잠적하는 사기, 고의적으로 기업을 부도 처리하는 사기 등

무역사기는 국경을 넘는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형별 주요 사기 수법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역사기 발생 배경과 동기

무역사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다양한 배경과 동기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러한 사기는 특히 국제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그 배경에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동기는 무역사기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사기 행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나 금융 위기 시에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제 거래에서 무역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도 무역사기의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법 집행이 느슨하거나 행정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사기 행위가 일상화되고 이를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관행과 문화가 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 3) 기술적 요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무역의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결제 시스템은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을 통해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더 쉽게 속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짜 웹사이트, 이메일 사기, 서류 위조 등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4) 기타: 무역사기의 동기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사기꾼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타국에 불법체류하기 위해 사기를 기획합니다.

3. 무역사기 동향과 사례 분석

① 결제사기

- 제품 선적을 완료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최초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던 바이어가 갑자기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을 승인할 경우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은 점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
-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현지 외환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 결제사기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12월

○ 피해금액: US\$ 29,000

R사는 화장품 수출사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발생함. 기존에 거래하던 베트남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외상 결제를하기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으나, 외상 결제로 제품을 납품받은 뒤로 채무 금액을 송금하지 않음. R사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업체에 결제 요청을 하였으나, 갚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

○ 발생시기: 2023년 1월

○ 피해금액: US\$ 773,156

국내기업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원재료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 업체 Q사로부터 물품 대금 외 별도로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았음. 이에 선금 지급 없이, 해당 수출 물품이 Q사가 지정한 공장에 도착하면 확인 후 100%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선적함. 그러나 Q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에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 결제를 지연하였고, 그 후 통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대금 결제를 거부함.

② 선적불량

- 상품 수입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상품을 보내는 형태
- 허위 물류기업 사이트를 구축해 제품이 선적된 것처럼 꾸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거나, 허위 물류기업을 소개해 물류비용을 갈취하는 형태
- 상품은 선적하지도 않고, 현지 세관을 핑계로 로비자금, 과태료,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음.
- 샘플 테스트 후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테스트용 상품은 진품으로, 실제 선적하는 상품은 가짜 제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존재

< 선적불량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12월

○ 피해금액: 비공개

국내기업은 홍콩 기업으로 사칭한 셀러 B사로부터 반도체용 부품·장비 구입을 위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금 송금 이후 B사와의 교신이 어렵고 물품 또한 수령 받지 못하였음.

무역관은 국내기업으로부터 B사 접촉을 요청받아 B사 연락처로 유선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주소지 또한 직접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B사가 입주해 있지 않음을 확인했음. 국내기업은 이후 현지 경찰 및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함.

○ 발생시기: 2023년 4월

○ 피해금액: US\$ 60,000

국내기업은 독일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기존 거래처인 W로부터 F사를 소개받음. 국내기업은 기존 거래처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F사에 약 6만 달러의 대금을 송금. 이후 발주한 물건이 한국에 도착했으나 전량이 아닌 소량만 도착함. B사가 F사에 연락해 물건을 소량만 보낸 이유를 묻자, F사에서는 나머지 물건을 UPS에서 픽업했기 때문에 곧 선적될 것이라고 답변함. 하지만 B사가 UPS에 확인한 결과, 화물이 픽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시점부터 F사는 잠적하여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음.

③ 금품사기

- 사기업체가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
 - * 일면식도 없는 사기업체가 물품 구매를 희망한다며 이메일로 접근
- 무역 대금 전체보다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등을 빌미로 사기를 시도함.
- 해외기업과 교신하는 중간에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기유형에 비해 금전적인 피해는 적은 편

< 금품사기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10월

○ 피해금액: 비공개

국내 화장품 기업 R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수출 거래를 하게 됨. 바이어 측에서 현지 통관을 위한 BPOM 인증 절차를 대신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음. 그 이후 인도네시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입찰을 받아야 인증 취득이 완료된다고 입찰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였음. BPOM 인증비용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한 후 3주가 지났으니, 인증 등록번호를 먼저 달라고 했지만 바이어 측에서는 입찰에 성공해야 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 시간을 끌었음.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내기업은 무역관에 해당 바이어의 실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무역사기로 드러남.

○ 발생시기: 2023년 9월

○ 피해금액: 없음

국내기업 S사는 토고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W사로부터 제품 구매 의사와 함께 계약서, 주문서와 함께 기관 진위와 관련된 에이전트 등록증을 전달받음. 추후 W사는 현지 행사 참석과 함께 입찰 등록 비용을 요청함. S사가 이를 거절하자 W사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S사가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통보하며 추가 업무 진행 연락을 해옴. 빠른 업무 진행에 이상함을 느낀 S사는 W사의 진위 파악을 무역관에 요청하고 업무를 중단함.

④ 이메일사기

- 0 주로 거래기업 간 주고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형태
- 0 계좌번호 변경 안내 외에도 송금증 위조 등으로 수입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오랫동안 무역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함.
- 0 변경된 계좌번호 안내 시 수취인은 기존 거래처명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 확인만을 통해서는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기가 어려움.
- 0 기업규모, 바이어 소재국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음.
- 0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작살을 의미하는 스피어(Spear)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이 결합한 용어로 이메일 사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타깃형 공격 범죄
- 0 일반적인 무역사기와는 다르게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법공조가 요구되는 복잡한 케이스임.

<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메일사기 >

이메일사기는 불특정한 다수의 개인보단 특정 기업을 노리는 타깃형 온라인 범죄인 스피어피싱의 한 종류이다. 해커들은 특정 기업 선택 후 영업비밀이 포함된 비즈니스 메일을 탈취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기업 간 주고받는 메일을 지켜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 안내로 제3의 해외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챈다.

이 밖에도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가는 키로거(Key Logger) 공격 수법 또한 사용되고 있다. 악성코드를 설치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빼앗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도 중요하다.

< 이메일사기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4월

○ 피해금액: US\$ 17,411

국내기업은 오랜 기간 거래한 수출업자에게 물품 잔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해달라는 메일을 받고 잔금을 송금함. 그러나 송금했던 금액이 다시 반환되었다고 은행으로부터 이메일 연락을 받음. 국내기업은 수출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니, 변경된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변경된 개인 계좌로 물품 잔금을 송금하였음. 일주일 후 국내기업은 수출업자로부터 물품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음. 확인 결과 거래 중간에 이메일이 해킹당했으며, 해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음.

○ 발생시기: 2023년 4월

○ 피해금액: US\$ 12,650

국내기업은 기존에 거래하던 두 곳의 거래 기업을 사칭한 해커로부터 송금 요청 이메일을 받았음. 국내기업은 해커가 지시한 미국의 두 은행으로 총 1만 2650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함. 해커는 기존 거래 기업 관계자의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메일 계정을 생성, 이용하여 송금할 것을 요구해 국내기업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음. 국내기업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현지 사법 당국과 수취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동시에 지급정지를 요청함.

○ 발생시기: 2022년 5월

○ 피해금액: US\$ 209,829

기계가공 공구 수출기업 J사는 일본 현지 유통기업 R사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건을 선적한 뒤 인보이스를 청구하여 지불받는 방식을 유지함. 그러던 중 R사가 신원 불명의 제3자로부터 국내기업 J사의 거래 은행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계좌변경 서류에 날인된 J사의 법인인감을 신뢰하고 세 번에 걸쳐 물품 대금을 송금함. 실제로 J사는 통장을 바꾼 적이 없었으며, 이메일과 계좌변경 서류가 교묘히 위조된 것을 확인함.

⑤ 서류위조

- 위조한 서류를 보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제품 등을 갈취하는 유형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등을 위조
- 정부 기관 또는 실존하는 기업의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임시로 개설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제품 편취를 시도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 유형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 금품을 갈취하거나, 초청장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활용
- 허위로 등록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투자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음.
- 가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에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 위조된 서류 이미지 예시 >

 <p>튀르키예 외무부 로고 / 사기업체 위조 로고</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실존기업 홈페이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피싱사이트</p> </div> </div>
<p>위조, 허위 문서는 주로 이미지가 깨지거나 픽셀이 일정하지 않으며, 고무인 등이 서류 내 다른 자료 대비 눈에 띄게 선명할 수 있음.</p>	<p>코로나19로 현장실사가 어려워져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음. 특히 웹사이트는 제작이 쉬워 실존하는 기업의 정보를 도용해 담당자, 연락처 정보만 변경하여 피싱사이트를 만들기도 함.</p>
<p style="text-align: center;">UN 및 UN 산하기관 로고</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UN 사칭기관 로고</p> 

주: 상기 이미지는 KOTRA 무역관이 무역사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임.

〈 서류위조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5월

○ 피해금액: 없음

국영 에너지 기업의 자회사를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석유 제품 판매 거래를 국내기업에 제안함. 무역관에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확인 요청을 접수하여 국영 에너지 기업 측에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해당 서류는 진본이 아니었으며, 통상 해당 자회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국내기업이 확인 요청을 위해 공유한 메일/전화번호/발신자명 등 모두 사기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임을 확인하여 무역사기임을 안내함

○ 발생시기: 2023년 4월

○ 피해금액: 없음

국내기업은 해외 셀러로부터 판매 제품에 대한 서류 일체와 계약서류 검토를 의뢰받았다. 국내기업은 전달받은 해외 셀러의 사업자등록, 계약서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외 셀러가 은행 및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제출이 미뤄지자 의심을 품고 무역관 측으로 문의함. 무역관은 현지 상공회의소 및 신용평가기관 DB에 셀러의 상호가 없고, 제출한 서류에 서명을 한 담당자가 실제로 발급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내어 무역사기를 예방하였음

〈 한국무역보험공사 접수 명의도용 사기 주요특징 〉

- ① 첫 거래
- ② 선진국 우량 바이어 사칭
- ③ 물품을 소재국 아닌 제3국 또는 자국내 他주소지로 선적할 것을 요청
- ④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업체로 지정
- ⑤ 선수금·신용장 거래 제안을 했는데 외상거래, 수출보험 활용을 권유
- ⑥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위조하거나 급조한 웹사이트 제시
- ⑦ 제3국항 물품선적후 원본선하증권(OBL) 등을 송부 요청
- ⑧ 수출대금 결제 없이 수출물품 편취후 잠적

⑥ 불법체류

-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역사기로 유의 필요
-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 유형으로, 제품 확인 출장을 명목으로 국내기업에 초청장을 요구하고 입국 후 잠적함.
 - *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편

〈 불법체류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5월

○ 피해금액: 없음

현지 기업 M사가 국내기업의 한국 내 공장 방문 및 최종 금액 협상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며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에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을 요청함. 다만 방한비자 발급 대상자로 M사 대표 외 그간 H사와의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기술 및 교육 담당자 2명을 추가하여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을 국내기업에 요청함. 이를 수상하게 느낀 무역관에서는 M사의 대표 및 추가 방한 희망 인력 2명을 무역관으로 초대하여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밝혀냄

○ 발생시기: 2022년 6월

○ 피해금액: 없음

국내기업 D사는 오만 바이어 A사로부터 제품 수입 의향이 있다는 이메일을 수신함. 바이어는 4~5명의 엔지니어 및 판매 담당자를 한국 회사로 파견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한 뒤 구매를 희망한다고 하며 한국기업에 제품 교육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초청 비자 발급을 요청함. 이에 국내업체는 무스카트 무역관을 통해 기업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무역관 조사 결과 A사는 홈페이지 상 인력파견회사로 국내기업이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이 없었음. 기업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유/무선 전화로의 통화가 불가하였으며, 오만 외 해외 사무실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국내기업에 불법체류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림

⑦ 기타

-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사기 등 유형 분류가 어려운 사기유형은 모두 기타로 집계
- 일방적인 계약취소 및 독점 계약 체결 후 잠적하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사기 발생

< 기타 유형 대표 사례 >

○ 발생시기: 2023년 7월

○ 피해금액: 없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 UAE 소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B사로부터 대출 형태의 투자 제안 이메일을 수신함. 이후 형식적인 사전심사를 통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드백과 함께 대출금 교부를 위한 수수료 및 보험 가입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국내기업은 무역관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음. 교신 내역을 확인한 무역관에서는 B사가 현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타 국내기업에 접근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 기업 웹사이트에 있는 로고의 아랍어가 잘못 표기된 점과 유선 연락처 정보가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투자를 빙자한 대출사기 건임을 인지하고, 즉시 기업에 안내함.

○ 발생시기: 2022년 6월

○ 피해금액: 없음

국내기업 N사는 캄보디아 소재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3천만 달러의 투자 제안을 받고 교신을 지속하던 중, 2022년 합작투자 동반 관계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원활한 송금을 위해 특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것을 권유함. 해당 은행은 N사와 교신 중 N사의 계좌가 당국에 의해 거래 정지되었으며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자금 반출 승인 허가를 득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송금을 유도함. 이에 수상함을 느낀 국내기업은 문서를 무역관에 송부해 진위를 확인하였으며 무역관 확인 결과 신분 사칭 행각이 드러남.

1. 위험 평가 및 관리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 위험평가 및 관리 전략을 수립·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인 사기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자 할 때, 사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과정

- **정보 수집:**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신뢰성과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에는 업체의 재무 상태, 업계 평판, 이전 거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 식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사기 위험 요소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 비현실적인 납품 조건, 업체의 본사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험 평가:** 식별된 위험 요소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거래의 잠재적 손실과 사기 발생 가능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리 계획 수립:**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선금금 지급 시 보증서 요구, 거래 전 모든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 관리 전략

- **계약서와 합의:** 모든 거래 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형태로 담아야 하며, 모든 이상 조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용 검증과 실사:** 거래 당사자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거래 파트너와의 첫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 **보험 및 보증:** 사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신용보험 또는 거래 보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무역사기의 유형과 예방 전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기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0 무역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행동요령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기관명	서비스명	내용
KOTRA (☎ 1600-7119)	무역투자상담	기업 실존여부 확인 등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수출입보험	무역 관련 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해 해외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2. 무역사기 유형별 주의해야 할 사항

① 결제사기 / 선적불량

0 거래 전 거래처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 필요
 - *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 거래기업이 수출·수입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도 조사
- 웹사이트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진위 검증 필요
-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우에도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 실시

0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

-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급하게 추진할 시,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외상거래 진행 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기존 거래를 외상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 고려 필요

0 신흥국 또는 미개척 시장 바이어와의 거래, 대형 거래인 경우 안전장치 확보

- 신흥국은 바이어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 권장
- 거래량이 큰 경우, 물량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 마련 필요
- 첫 거래 시에는 신용장(L/C) 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외환법에 따라 결제 대금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외환법 등 관련 제도·제약 사항 등 확인

0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 기입이 바람직

- 불량제품 선적, 물류 운송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조항 기입 필요
 - * 샘플 수입을 통해 품질, 통관 등 문제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0 담당자 변경이 잦은 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및 증빙 서류는 사전에 꼼꼼히 정리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관리방안 〉

0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1 국외기업 신용조사 개요

- 국외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 제휴
- 연간 5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2 이용절차 : 사이버영업점 활용



3 수수료

보고서 종류	기업규모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 미비	신용조사불가자 또는 장기소요(40일 초과)
요약보고서	중소·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중소·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99,000원	33,000원	면제

신용평가보고서 샘플

국외기업 신용조사 요약 보고서

국외기업명: _____

국외기업코드: _____

대표자: _____

국가: _____

주소: _____

평가완료일: _____

통 제 사 항

대표 수출국지: _____

회계처리 방법: _____

수출 시기/지역 관련: _____

신용조사 문의: _____

무역보험이용 문의: _____

제공 내역

- **국외기업 신용등급(A~F, G, R)**
 - 무역보험공사 정상 지원 여부 확인 (G급과 R급은 무역보험 부분 제한등급으로 인수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수출진행 권장)
 - 신용평가 이력
 - 국외기업 및 동종업종 평균 신용등급 비교
- 국가 정보 및 국가등급, 국별인수방침
- 무역보험이용현황 및 **보험사고여부**
- 재무상태 및 주요 재무항목 추세정보 (단, 국외기업의 자료 미제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위험
- 국외기업 등록정보 등

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활용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개 요**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부 보 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제도도해



2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Plus+

- 개 요**
-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무신용장위험, 신용장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

계약사항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요건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 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 제외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 시 사전등록 (최대 50개) 수입자신용조사생략/신용R급, 고위험인수제한국* 소재수입자 신용장은행제외	
보상비율	100%	95% 이내
담보위험	(기본) 무신용장, 신용장 위험 (특약) 무역 Claim	(기본) 무신용장, 신용장 위험

* 고위험인수제한국 : '23. 12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수단 10개국이며,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계약사항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험별 책임금액	기 본 위험 - 최대 U\$150만 클레임 위험 - 최대 U\$50천 최소책임금액 - U\$10천	기 본 위험 - U\$450만 클레임 위험 - 담보 안 함 최소책임금액 - U\$10천
기타	수 출 통 지 : 없음 국별인수방침 : 고위험인수제한국*에 한해 적용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체결, 갱신 보 험 료 납 부 : 연간 보험료 선납	

* 고위험인수제한국 : '23. 12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수단 10개국이며,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② 금품사기

- 계약의 최종단계(전체 계약금액)보다는 **중간단계에서의 수수료 사기 등이 주목적**이므로 대금 지급조건이 유리하더라도 주의 필요
 - 거래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정부 입찰 벤더 등록, 공증 수수료, 보증금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 선납 100% 등 유리한 조건의 계약일지라도 거래 과정에서 수입 예치금, 정부 승인 절차 비용 등을 요구하며 금품 갈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철회한다며 재촉하거나 급하게 계약을 추진할 경우 주의
- **대규모의 정부 입찰, 비영리기관의 물품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필수**
 - 정부,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므로 계약체결 전 기업 정보 확인은 필수
 -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을 사칭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에 등록 여부 등 확인
 - 제품에 대한 문의 메일에 특정 제품명 대신 ‘Your product’ 등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무역사기 의심 필요
 - * 다수의 대상에게 메일을 보내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특정 물품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서류를 진행했더라도, 상대방이 등록, 인증, 대리인 선임 등 명목으로 1,000달러 내외를 요구할 시, 송금하지 말고 확인 필요
- T/T를 통한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가짜 송금증을 보낸 후, 물건을 지정된 항공 운송사를 통해 빠르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 빈번. 시급한 상황, 유리한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위조된 송금증이 은행 확인이 되기 전에 항공 물류비의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사용

③ 이메일사기

- 갑자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주의 필요
 - 이메일로 계좌 정보를 변경할 경우 대금 송금 전에 반드시 유선, 화상통화 등 이메일이 아닌 수단을 통한 이중 확인 필요
 - 해외기업 소재지와 대금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주의 필요
- * (예시) 몽골 소재 기업과 거래 중 대금은 홍콩 은행으로 송금 요청을 받을 경우

< 계약서 작성 시 TIP >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이나 거래 정보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하면 이메일사기를 통한 대금 오지급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오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절차를 취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50:50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양사 모두가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취계좌 변경 프로토콜’을 명기해 계좌 정보가 변경될 시 이메일 외 별도의 통신장비를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해 놓으면 이메일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메일 해킹은 사기범이 수출자/수입자 메일을 해킹하거나, 수출자를 사칭한 위변조 메일 계정으로 수입자에게 거짓 입금계좌를 안내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범은 수출자와 해외바이어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해킹하여 상당 기간 서신내용을 주시하다가 결제가 진행되는 결정적 시점에 수출자를 가장하여 거짓 계좌로 송금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 이메일 해킹을 통한 결제대금 편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 첫째, 결제계좌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수립 및 해외바이어에게 공지
 - *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이메일 하단에 해당 안내문구가 삽입되도록 설정

< 예시 : 결제계좌 불변경 안내문 >

All payments according to this Sales Agreement shall be made to the designated account below;

Bank : XXX Branch, XXX Bank

Address : XXX,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WIFT CODE : XXX

Account No. : 111-2222-33-444

Beneficiary : XXX Co. Ltd

Seller will never change its bank account details for payment.

Seller will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if Buyer transfers money into an incorrect account.

< 예시 : 인보이스 또는 이메일 하단 주의문구 >

We will never change our bank account details for payment.

We will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if you transfer money into an incorrect account.

- 둘째, 결제계좌 변경 절차의 사전적 수립 필요

- * 결제계좌 등 계약상 중요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서면요청 이외에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 추가적 방법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사전에 약정
- * (모범 사례) 수출계약서에 결제계좌 변경은 공문요청 및 전화 확인의 2단계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

< 예시 : 결제계좌 변경 프로토콜 조항 >

To prevent trade frauds such as identity theft and email hacking by cyber criminals, the Seller's bank account for pay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hanged only by the following two-step verification:

(1) a written notice to the Buyer with the Seller's letterhead and authorized signature; and

(2) a telephone calling to the Buyer by the Seller confirming the written notice within twenty four hours.

Any notice of changing the Seller's bank account to the Buyer without satisfying the above two-factor authentication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 0 임직원 및 재무팀 등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 시행
- 회사 이메일을 통한 사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업무 담당자가 메일 변경 사항에 대해 일일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메일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최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 필요
 - 첨부파일 내 악성코드를 통해 서버 침투가 가능하므로 첨부파일 열람을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즉시 삭제
 - 회사 이메일계정 외에 상용메일을 사용할 경우, 특히 보안에 주의
 - * 회사 이메일 계정 사용 시에도 상용메일과의 연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0 수신자 확인 시 메일의 앞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아, 교묘하게 메일 주소를 수정하는 경우 사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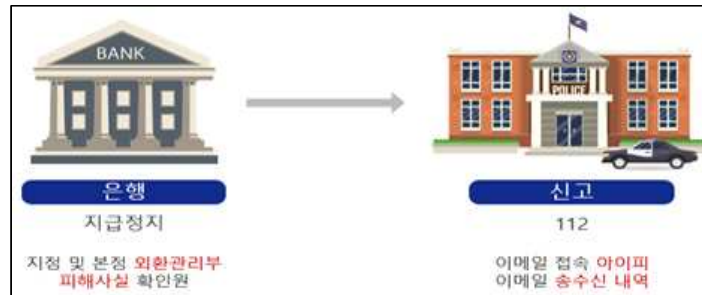
< 주요 이메일 변조 수법 >

원본 이메일	허위 이메일	변경글자
@*u.um*.com	***@*u-um****.com	사용기호 변환: “.” → “-”
@**owm*.com	***@**owsm****.com	글자 “s” 추가
****@***group.com	****@***gruop.com	글자 재배치: “ou” → “uo”
sales@***.com	sales@***.com	글자변경: “l”(소문자 L) → “I”(대문자 I)
@**daircraft.com	***@*****dajrcraft.com	글자변경: “air”→“ajr”
***@**.163.com	***@**.l63.com	숫자를 문자로 변경: “1”(숫자) → “l”(소문자 L)
***@**uffle.it	***@**ufle.it	글자삭제: “uffl” → “ufl”

- 0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이메일사기로 탈취한 대금은 중간지 은행을 경유해 최종 도착지로 입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 상대 국가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대 거래기업에 협조 요청
 - * 최초 송금은행, 중간지 은행, 최종 수취은행까지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필요
 - ** 우리 기업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지급정지 요청 후, 계좌 상세 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과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원문,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을 취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이메일사기 신고 순서 >



< 이메일사기 온라인 신고 방법 >

-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신고하기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④ 불법체류

0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 필수

- 위장취업, 난민 신청 등을 목적으로 방한을 시도하는 바이어 위장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불법체류를 할 경우, 소재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주의 필요

☞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번호: ☎ 1588-7191

⑤ 서류위조

- 인보이스 등 서류에 기재된 기업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 볼 것
 -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
 - 대기업, 유명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려진 기업 일지라도 실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현지 기업등록사이트 내용과 일치하고 재무제표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립연도, 주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문서를 확대해 첨부된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 볼 것
 - 위조·허위 문서는 포토샵 등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 글꼴의 크기 및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로고나 날인을 합성한 이미지 사용 시 대부분 픽셀이 일정하지 않으며, 서류 내 다른 자료 대비 눈에 띄게 선명할 수 있음.
 - 각종 서류에 도장, 서명 등이 남발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 필요
- 비즈니스 경험보다는 정부기관,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할 경우 의심 필요
 -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안내보단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환심을 사는 경우 주의
-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의 웹사이트가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을 경우 피싱사이트로 의심해 볼 수 있음.

< 인보이스 체크리스트 >

- ① 실제 기업명과 주소가 인보이스에 적힌 기업명, 주소와 일치하는가?
- ② 전화번호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국가·지역번호에 해당하는가?
- ③ 수취은행 소재지가 거래기업 소재지 국가로 되어 있는가?

< 명의도용 예방 체크리스트 및 예방방법 >

무역절차	구분	특징
(1단계) 최초접촉	1	거래경험이 없던 신규 수입자가 이메일을 통해 주문
	2	선진국의 우량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구매 담당자라고 주장
	3	수입자측 담당자 메일이 수입자의 공식 도메인과 미묘하게 다르거나 상용메일(gmail, yahoo 등)을 사용
	4	수입자가 알려준 홈페이지가 조작하거나 부실
	5	현지국 등기소, 법원 등에 등록된 공식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음
(2단계) 주문상담	6	주문서상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불일치
	7	수입자의 주업종과 상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물품을 주문
(3단계) 조건협의를	8	첫 거래임에도 선수금, 신용장 방식거래를 거절하고 외상거래를 고수하며, 수입자가 먼저 무역보험 이용을 권유
(4단계) 물품선적	9	수입자소재국과 물품 인도 국가가 상이 (소재국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나, 물품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등 개도국)
	10	선적서류상 바이어와 실제 물품을 수취하는 수하인이 상이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첫거래로서, 바이어로부터 이메일로만 연락이 오는 경우**
이메일 도메인이 바이어 상호명과 미묘하게 유사, 또는 Gmail 계정 사용시 주연 확인
- 바이어의 업종이 귀사로부터 구매하려는 물품과 상이한 경우**
- 바이어의 소재국가와 물품의 인도지가 다른 경우**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물품 인도를 요청)
- 첫거래인데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의 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 첫 거래임에도 사후송금 결제방식을 요구하며 수출보험 이용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상대 확인 방법

- 현지실사, 샘플거래, 바이어 공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한 확인, 바이어 송부 서류의 진위여부확인**
- 이메일 주소 또는 웹사이트 개설일 등 정보 조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whois.kisa.or.kr)
수입자 업종에 비해 개설일자가 최근인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 해외투자진출 상담 등**



0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사이트 활용

연번	국가명 (지역명)	기관 / 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	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화이트페이지	www.whitepages.com/phone 미국 최대 온라인 디렉토리 서비스로 개인과 기업 연락처 DB 보유
		사기업체 조회	www.scamadviser.com
3	중국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www.gsxt.gov.cn
4	홍콩	기업등록국	www.icris.cr.gov.hk
		사기업체 조회	https://www.era.com/era_blog/3160/_hundreds_of_component_buyers_scammed_by_fraudulent_websites
5	말레이 시아	기업등록국	www.ssm-einfo.my www.ramcreditinfo.com.my
		NGO단체 등록국(ROS)	www.ros.gov.my/index.php?id=2&page_id=19
6	영국	기업등록국	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7	인도	기업등록국	www.mca.gov.in/content/mca/global/en/home.html
8	독일	기업등록국	www.handelsregister.de
9	싱가포르	기업등록조회	www.uen.gov.sg
		사기업체 조회	www.scamalert.sg
10	베트남	기획투자부	dangkykinhdoanh.gov.vn/en/Pages/default.aspx
11	토고	상공회의소	www.ccit.tg
12	가나	기업등록국	rgd.gov.gh/sole%20prop.html
13	캄보디아	기업등록국	www.businessregistration.moc.gov.kh
14	오만	상공부	www.business.gov.om

※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기업의 경우 기업 정보 사이트 조회 또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이 어려울 경우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상담 신청' 또는 KOTRA의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KOTRA에 조사를 의뢰 가능

< Scamadviser를 통한 사기업체 조회 화면 >



⑥ 기타

0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기업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 필요

- 잘 모르는 기업이 투자를 원한다며 접근해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것

0 구두계약보단 확실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

-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한 거래처일지라도 구두계약 체결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일부 지역의 정부 입찰프로젝트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기술, 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파악한 후 최종 의뢰는 중국기업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은 지양

< 이외에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행정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선하증권(B/L), 신용장(L/C) 등의 서류 수정 시 무역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유의
- 이메일, SNS 등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만을 고집하는 경우 주의
- 수입 라이선스가 없으면 수입 업무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확인 필수
- 국가 간 기술표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이 불가해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기관, 국제기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기관 등에서 먼저 접근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경우 의심 필요
- 영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받을 경우, 현지어 원문의 유무와 함께 번역에 대한 공증 여부 확인 필요

IV

무역사기 발생 시 핵심 행동요령

□ 무역사기 대응 핵심 행동요령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거래은행	· 한국은행 및 거래 상대 국가의 은행에도 지급정지 신청
경찰관서	· (PC)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민원전화) ☎ 182 ·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24시간 운영) ☎ 02-3150-2659 · 필요 증빙: 계좌 상세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원문,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

기관명	서비스명	내용
KOTRA (☎ 1600-7119)	무역투자상담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역사기 상담, 기업실존여부 확인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수출입보험	무역 관련 보험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02-2110-3665)	국외기업 신용조사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NICE신용정보 (☎ 02-2122-2445)	국제사건 법률자문	소송을 위한 법률자문
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해외 미수채권 회수 서비스	미수금액 회수 지원
	중재제도	바이어와의 중재 지원

□ 관련 웹사이트

연번	기관 / 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1	KOTRA(해외경제정보드림)	dream.kotra.or.kr
2	경찰청	www.police.go.kr
3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4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5	NICE신용정보	www.niceamc.co.kr
6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7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www.immigration.go.kr

참고. [KOTRA x NICE신용정보] 해외 미수채권 회수 서비스 할인 안내

0 KOTRA 회원사 대상 할인 혜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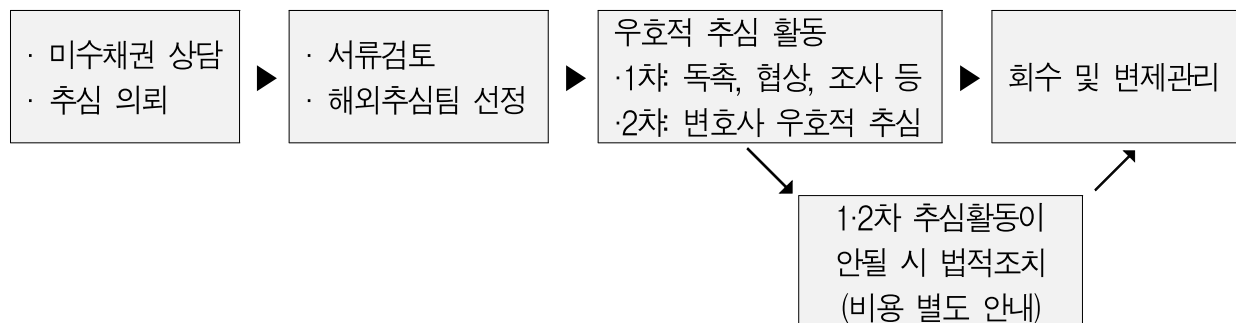
구분	KOTRA 회원	일반기업
접수비	10만 원	30만 원
성공보수	회수금액의 25~29%	회수금액의 30~35%

* 부가세(VAT) 별도

0 해외 미수채권 회수 서비스란?

- 해외 업체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을 회수해 주는 서비스

0 진행절차



0 구비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송금내역, 사건내역 등의 증빙자료
- 채무 미이행 관련 채무자와 주고받은 교신내역
- 기타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0 문의처: NICE신용정보

담당자	최 호 진 과장	이 메 일	hjchoi@niceamc.co.kr
연락처	02-2122-2445	웹사이트	www.niceamc.co.kr/kr/service/trade.do

0 해외 미수채권 회수 성공사례

채권자	채무자	추심경과
국내 가전업체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18년 국내 가전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유통업체로 다수의 가전제품 수출 후 지금 지연 · 2021년 11월 NICE를 통해 추심 착수 · 인도네시아 유통업체는 최초 상환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재무/재산조사를 통해 운영상태 파악하고 상환여력 확인 · 3개월 동안 일부 상환 후 분할상환액 증액하는 일정으로 양사 합의 ·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분할상환 진행. 총 3차례 증액에 합의
국내 제조업체	미국 건축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미국 건축업체로 건축자재 수출. 지속적인 지급 연기 후 2020년 연락 두절 · 2021년 11월 NICE를 통해 추심 착수 · 3개월간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제품불량 사유로 미국 건축업체에서 상환계획서 제출 거부 ·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중재기관에 의뢰. 일부 불량을 고려하여 30% 감액 및 10개월간 분할상환으로 중재 진행 · 중재판결 확정 후 10개월간 분할상환으로 전액 납부 완료
국내 제조업체	케냐 건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조업체는 2020년 장비 설치 및 점검을 위해 케냐 건설업체로 기술자 파견. 7개월 분의 서비스대금 미지급 후 연락 두절 · 2021년 11월 NICE를 통해 추심 착수 · 최초 케냐 건설업체 측에서 24개월 분할상환 하는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채무잔액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전액상환으로 협상 진행 · 양사와 협의를 통해 9개월 분할납부로 전액상환 완료

0 해외 미수채권 회수 실패사례

채권자	채무자	추심경과
국내 식품업체	미국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국내 식품업체에서 미국 유통업체로 식품 수출. 미국 유통업체는 현지 판매 불가를 사유로 지급 거절 · 2022년 5월 NICE를 통해 추심 착수 · 거래조항 상 해석의 차이로 미국 유통업체 측에서 지급 거절 및 보관료 청구 · 현지 법무법인과 사건 재검토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사건종결
국내 제조업체	이탈리아 IT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이탈리아 IT업체로 주변기기 수출. 일부 부품의 불량이슈로 2021년부터 지급 지연 · 2022년 8월 NICE를 통해 추심 착수 · 2022년 이탈리아 IT업체 운영 중단으로 사건종결

0 회수 관건 포인트

- 채무자 연락두절 또는 6개월 이상 미상환 시 신속한 채권추심 의뢰
- 거래 전 해당 국가의 채권 소멸시효 및 대상 법인 운영여부 확인
- 거래 시 세부적인 계약서 작성 및 거래서류 확보
- 거래 후 채무자와 지속적인 이메일 교신을 통한 증빙내역 확보

작 성 자

- KOTRA
- 경찰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2024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KOTRA 자료 24 - 074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해외정보관리팀 (02-3460-7415)

- ISBN: 979-11-402-1015-2 (93320)
979-11-402-1016-9 (95320) (PDF)



